

광주 모든 사학법인, 내년부터 교육청 1차 위탁시험 참여

사립학교 채용 공공·투명성 향상 기간제 의존 교육 불안정 해소 기대

광주지역 모든 사학법인이 2026학년도부터 신규 교사 채용 시 시교육청 주관 위탁시험에 참여한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의 채용 공공성,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광주지역 35개 사학법인과 '사립 신규교사 임용시험 제도 개선 관련 협의'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사학법인에서 신규 교사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1차 시험성적 의무반영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신규 교

사 채용 사유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인이 시교육청 주관의 1차 위탁시험에는 참여해야 한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사학법인에서 신규 교사를 채용할 경우 1차 필기시험 성적을 최종 점수에 20% 반영하도록 했다.

그러나 광주지역 사학법인들은 1차 필기시험에 '과락'이 적용되고 있고, 현재 전국 모든 사·도교육청이 1차 시험 성적 반영 비율을 자율로 하고 있는 점을 내세워 의무규정 작제를 요구해왔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법인이 추가로 요구한 ▲2차, 3차 시험 외부평가위원 의무반영 비율 변경 ▲1차 시험문제 시교육청 자체 문제 출제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최종합격자 결정 시 적격자가 없을 경우 평가위원 전원 동의에 따라 최종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공립시험 운영방법'을 안내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이 마련되면서 그동안 시교육청 주관 위탁시험에 참여하지 않았던 일부 사학법인들도 2026학년도부터는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광주지역 모든 사학법인의 위탁채용 참여는 시교육청의 사립학교 정책 숙원과제 중 하나로, 2016년 이후 9년 만에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교육청은 일부 사학법인이 장기간 기간제 교사에 의존하면서 발생한 교육 불안정이 해소되고, 안정적이며 질 높은 교육 서비스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사립학교의 건전한 인사 운영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위탁시험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학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조선대 'HANul' 팀, 텍사스서 로켓 발사 성공

항공우주공학과, 국제로켓공학대회 첫 참가 IREC 본선 진출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 항공우주공학과 소속 'HANul' 팀(지도교수 김태규, 이현재)이 국제 로켓대회 본선에 진출해 로켓 발사에 성공했다.

23일 조선대에 따르면 'HANul' 팀은 최근 미국 텍사스에서 개최된 국제로켓공학대회 IREC(International Rocket Engineering Competition) 본선에 참가해 로켓 발사에 성공했다.

대회 현지 발사 감독은 "첫 참가임에도 성공적으로 발사를 마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높은 평가를 내렸다.

IREC 대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대학생 로켓 대회로, 올해는 최종 본선에 전 세계 23개국 145개 팀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본선에 참가한 HANul 팀은 항공우주공학과 남동현, 강승교, 위종찬, 이인규, 진선화, 황진하, 김정욱, 남광현, 박지현, 이남규 재학생 10명과 의과대 이선우 재학생 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이 수행한 미션은 카나드핀과 Cold Gas 기반 RCS(Reaction Control System) 추력기를 이용한 로켓 자세 제어로, 정밀한 설계와 제어 기술이 요구되는 고난도 과제였다.

HANul 팀은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로켓을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발사함으로써 기술력과 실행력을 입증했다.

HANul 팀장 남동현씨는 "이번 발사 성공은 팀원들이 한마음으로 준비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조선대학교 항공우주부트캠프사업단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 항공우주공학과 소속 'HANul' 팀(지도교수 김태규, 이현재)이 미국 텍사스에서 개최된 국제로켓공학대회 IREC에 참가해 로켓발사 성공을 다짐하고 있다. (조선대 제공)

(단장 김태규 교수)을 비롯해 후원해 주신 페리지, 우주로테크, 디에어, ANGUS 등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와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도 함께 밝혔다.

한편, 이번 발사 성공은 조선대학교 항공우주부트캠프사업단(단장 김태규 교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교육과 함께해온 '학부모들 헌신' 영상·사진으로 만난다

전남교육청, 7월4일까지 특별전

전남교육청이 다음 달 4일까지 청사 1층 로비와 갤러리 이음에서 '전남교육이 걸어온 길에 우리 엄마가 있었네' 특별전시를 한다.

이번 전시는 전남교육과 함께 해온 학부모들의 헌신과 수고를 전남교육의 역사로 기억하고자 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전시회는 ▲학교 가는 길(슈퍼맨 우리 엄마) ▲학교 속 안길(잡어자 우리 엄마) ▲학교 밖 큰길(등대 우리 엄마) 등으로 구성됐다.

'학교 가는 길'은 여수 가장도 모정의 뱃길, 신안 기점·소악도 노돛길, 녹색 어머니 등의 내용으로 채워졌다.

또 '학교 속 안길'은 학부모의 교육 참여 변화 과정을 담아내고, '학교 밖 큰길'은 우이도, 중태도, 소악도, 도초도 등 4개 섬 지역 부모님의 인생과 철학을 그려냈다는 게 도 교육청의 설명이다.

전시회 자료는 도 교육청이 발굴한 콘텐츠를 비롯해 신안군청·전남여성가족재단·국립목포대학교



'전남교육이 걸어온 길에 우리 엄마가 있었네' 개막식 참석자들이 개막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교육청 제공>

도서문화연구원 등 5개 기관 협업을 통해 수집한 사진 243점, 영상 265점, 전시 유물 14점 등 총 522점이다.

도 교육청은 이번 전시회를 7월 7일부터 31일까지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로비에서, 8월 4일부터 29일까지 신안군청 로비에서 각각 순회 전시한다.

이선국 전남도교육청 총무과장은 "전남교육 성장과 발전에 함께 해 준 학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학교가 갖고 있는 도민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가 전남교육 역사로 기록되는 체계를 마련하고 지속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대, 몽골과 글로벌 교육 파트너십 구축

지방정부 4곳과 협약 후 답방...주요 학교 방문 협력 방안 논의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는 글로벌 교육 파트너십을 맺은 몽골 지방정부 4곳과 우의를 다지고, 몽골 주요 고등학교 및 대학과 실질적 교류 협력을 위해 4박 5일간의 몽골 출장길에 올랐다. <사진>

이번 방문(6월 19일~23일)에는 김동진 총장을 비롯해 김경태 대외협력처장, 최지수 국제협력부처장 등이 동행, 첫 날 몽골 도시건설개발부 바트소리 장관이 주재한 만찬에 참석해 기관 간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김동진 총장은 이 자리에서 "몽골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성지'인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광주대학교에

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선진 교육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해 광주에 취업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광주대학교는 지난 5월 30일 교내 행정관 6층 회의실에서 몽골 지방정부 4곳(던드고비 만달고비시, 수흐바타르 바른 우르츠시, 헨티 칭기스시, 도르노드 초이발산시)과 우수인재 교류 및 기관 간 교류 협력을 약속하는 상호협력 협약을 맺은 바 있다.

협약에 따라 상호기관은 ▲인재양성을 위한 학교 공동 운영 프로그램(상호학위 인정 2+2, 3+1) ▲한국어 교육 및 기타 공동 교육 프로그램 ▲단기연



수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상호 방문, 교육 등 협력 교류 활동 ▲여름캠프 및 세종학당 프로그램 지원 ▲여학연수나 교환학생 방식의 정기적인 학생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호남대 학생들이 '세계교육기행' 떠나요

10개학과 8개 팀, 전공 연계 수행 계획...유럽으로 권역 확대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 학생들이 8월초까지 전공과 연계된 수행 계획을 바탕으로 학습능력을 키우고, 리더로서의 자질 및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세계교육기행'을 떠난다.

호남대학교 대학혁신본부 비교과통합지원센터(센터장 좌현숙)는 지난 18일 소방행정학과 재학생으로 구성된 '한일대학생 의용소방대 교류단' 팀을 시작으로, 총 10개학과 학생들이 팀을 구성해 짧게는 4박 5일, 길게는 8박 11일의 일정을 소화하는 '세계교육기행'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교육기행은 종전에 일본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역을 활동 대상으로 국한했던 것에 비해, 영국과 캐나다, 독일 등 유럽으로 지역을 넓혀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중점을 뒀다.

이번 세계교육기행팀은 ▲소방행정학과와 '한

일대학생 의용소방대 교류단' (일본, 삿포로) ▲외식조리학과와 '우마이' (일본, 도쿄) ▲사회복지학과와 '웰파벳' (영국, 런던) ▲시각융합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학과, 미디어영상공예학과와 '호대 밝은 유럽' (독일, 베를린) ▲만화애니메이션학과와 'Out of frame' (영국, 런던) ▲간호학과와 '백의의 여장' (영국, 런던) ▲축구학과와 'FIRST CLASS' (영국, 런던) ▲치위생학과와 '파파라차!' (캐나다) 팀 등 8개팀 44명이다.

참가팀은 인솔교수와 함께 해당 전공에 부합하는 내용과 사전조사, 계획을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교육기행을 진행하며, 종료된 후에는 탐방주제에 따른 현지 조사내용 사례를 수집, 자료를 정리해서 발표하는 등 프로그램의 성과를 최대한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10-50900100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